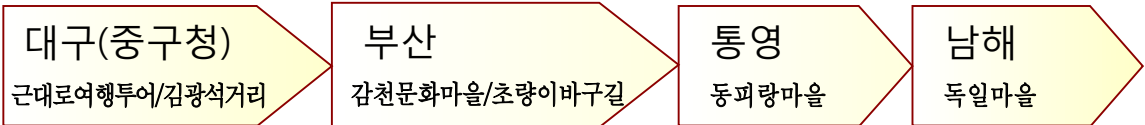


-1동1명소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- 타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결과보고

벤치마킹 개요

- 기간 : 2016. 2. 24(수) ~ 2. 25(목)
- 대상 : 구정비전추진단 단장외 6명
- 벤치마킹 코스



I 우수사례 총괄보고

- 1 역사와 사물에 대한 **스토리텔링** 마케팅기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가치를 높이고 다시 찾는 명소로 만들



근대로여행 청라연극(박태준) 3·1운동만세길 이인성나무 김광석노래 초당마을 독일마을

2 각종 공모사업과 관련분야 「상」을 수상함으로써 대외적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였고 지역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이끌어냄(성공에 대한 자부심)

근대로/김광석거리	감천문화마을	동피랑 마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12 한국관광의 별 선정 2013 아시아 도시경관상 2015 한국관광100선선정 2015 한국관광의 별 K스마일 장관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09, 2010문화관광부 마을미술프로젝트 미로미로골목길 프로젝트 공모선정 2011 산복도로 르네상스 2015 새뜰마을공모선정 2015 도시형공동체 대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14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공식프로젝트인증 2014 지역문화브랜드대상 2015 한국관광100선선정

3 마을전체/거리를 하나의 컨셉으로 추진한 원동력이 성공스런 사례를 이끌어낼 수 있었음 (근대로의 여행 / 김광석 거리 / 독일마을)



4 단순한 벽화로는 공감대형성이 어렵고 스토리와 입체적 체험, 세련된 미술·문화공간의 어울려 졌을 때 만족도가 형성되며, 지속적인 주민의 참여와 운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노후화가 될 수 있음



차랑이바구길전시

김광석거리체험

동피랑마을

독일라독전시관


II 사례별 벤치마킹 세부내역

대구 근대로여행

지역특징

- 대구읍성 철거 전후(1907)를 중심으로한 격동의 대한민국 근현대사 스토리 집중
- 근대문화공간 디자인개선사업('07~'09)을 계기로 조성
- 근대골목투어프로그램(5코스)으로 활성화되어, '대구골목투어' 로 상표등록
- '15.한국관광 100선 선정
- 주요명소로 경상감영공원, 대구근대역사관, 향촌동 수재화거리, 동산·청라언덕·이상화·서상돈 고택, 뽕나무 골목, 진골목, 약령시 한의약 박물관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, 삼덕동 문화거리

세부내용

주요내용	관련자료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대구 근대로의 여행 추진배경 및 주요중점 추진내용 (대구 중구청 관광개발과장으로부터 설명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구는 6.25전쟁으로 인한 폭격 피해가 거의 없어 근대유적이 원형으로 보존됨 - 이상화 고택터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되어 훼손될 상황에서 2007년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해 고택터를 보존하면서 본격 추진 - 당시 지금의 현 구청장이 시민운동가로 활동시 고택보존운동을 벌여 모금액(7천여만원)을 구에 전달하였고 이후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고택터 앞으로 도로가 개설되었고 구청장 취임이후 공공디자인개선사업으로 이상화고택터를 포함해서 개발하게 됨 - 대구읍성을 기준으로 동쪽길을 동성로, 서쪽길을 서성로 남쪽길을 남성로라 하며, 성안 마을을 성내동이라 호칭 - 중구인구는 최대 23만여명이었으나, 4만까지 축소되었다가 현재 8만여명으로 증가 - 중구 재정여건 상 자체사업은 엄두를 못내다가 유인촌 문광부 장관시절, 문광부 공모사업을 소개받고 공모를 통해 재원 확보. - 2007년부터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“신택리지“ 발간 - 동성로(원도심)은 2007년 이전에는 320여개의 노점상으로 인해 개발이 곤란했으나, 지중화사업을 통해 노점을 정리 	 <div data-bbox="1276 1541 1455 1998"> <p>사업명(추진상황)</p> <p>①남성로역사한방특구 79억원 : 완료 < '00.1~'01.12 ></p> <p>②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 62억원 : 완료 < '07.5~'10.12 ></p> <p>③근대골목디자인개선 23억원 : 완료 < '07.7~'09.6 ></p> <p>④종로 진골목디자인 개선 33억원 : 완료 < '10.5~'13.6 ></p> <p>⑤경상감영공원주변 전통문화거리조성 11억원 : 완료 < '11.6~'12.6 ></p> <p>⑥향촌문화관 대구 박물관 160억원 : 완료 < '10.5~'14.9 ></p> </div>

- 주민들 입장에서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도심재생사업이 성공하는 모습을 직접 겪으면서 느낀 “성공의 경험”이 중요했다고 보이며, 이후 골목길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됨
- **2007년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근대로 사업이 본격 추진됨**
 - > 자본금 5천만원, 대구도시공사로부터 출연금 20억원을 지원받으면서 토지매입 등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해 짐
 - > 재단은 이사(전원 비상임), 직원은 총12명 중 1명은 이사장(구청장 겸임), 직원은 사무국장 외 10명(8명은 공무원, 3명은 계약직원)

● **근대로여행의 2코스 투어를 하면서**

- 근대를 살아온 지역주민이 해설사로 활동하면서 개인의 경험과 삶이 녹아든 설명으로 관광객들의 몰입감 증가
- 스탬프 투어를 한 관광객에겐 인근 상인들이 할인행사 제공 (개발당시엔 호응이 없었으나,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상인들이 직접 할인행사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하는 횟수가 늘고있음)
- 각 지점마다마다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며 근대에서 현재로 연결되는 다양한 내용을 사물에 투여하여 흥미를 이끔
- 한국의별 ‘근대로의 여행’이란 홍보BI를 사용하여 건물래핑, 각종 홍보안내물, 관광개발과 명함 등에 활용하여 적극적인 사업 홍보
- 골목투어 안내판이 곳곳에 알기 쉽게 위치해 있었고, 통일성 있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골목투어 홍보역할을 하고 있었음

● **다양한 주제별 포럼 개최로 공감대 형성**

- **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되어 엄청난 홍보효과를 보았으며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모아 다른 공모사업에 실질적 도움이 됨**

사업명(추진상황)	
⑦예코한방엘빙체험관	53억원 : 완료 < '11.9~'14.8 >
⑧근대역사문화탐방사업	32억원 : 완료 < '13.3~'14.12 >
⑨향촌동문화거리조성	40억원 : 추진중 < '14.1~'15.12 >
⑩대구역상장거리 조성	70억원 : 추진중 < '12.1~'15.6 >
⑪순정황제 어길 조성	70억원 : 추진중 < '13.1~'15.12 >
⑫삼화원 둘레길 조성	93억원 : 추진중 < '13.1~'15.12 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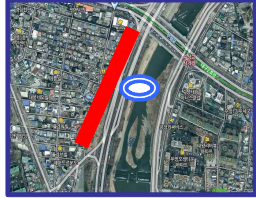



김광석 거리

지역특징

- 2009년 방천시장 일원 환경개선 → 시장상인, 예술가 중심 별의별 별시장 프로젝트 추진
→ 시장상인과 예술가들이 전통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문전성시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본격화 되었으며, 2010년부터 현재까지 김광석 길 조성사업은 계속되고 있으며 대구지역의 대표적인 도심관광지/ 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남

세부내용

주요내용	관련자료															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예술프로젝트 “별의별 별시장”(문화를 통한 전통시장활성화시범사업)를 추진하던 중 공모사업으로 당선되어 추진 ● 당시 쓸모없던 방천독길 벽면을 활용, 벽화사업을 추진 ● 입소문이 나면서 사업이 확대되었고 근대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- 벽화노후화 및 유지를 위해 “김광석 다시그리기”사업을 진행중 ● “김광석”이라는 아이템이 청년층 등 관광객을 불러오고 있음.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인물화 앨범자켓 등의 이미지가 벽화나 조형물로 조성되어 보는 것만이 아닌 사진촬영 등으로 확대 ● 인근에 방천시장이 있고, 김광석 거리를 중심으로 뻗어나간 골목의 노후주택과 상가가 가급적 원형을 유지하면서 리모델링 ● 일부 상업자본이 김광석 거리에 이미 입점해 있거나 입점예정인 상황 ● 여타 벽화와는 달리 “김광석”이라는 단일주제로 특화하고 집중마케팅한 것이 성공포인트임 ● 거리내 김광석을 알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실제 방송국시설, 상설공연장, 축제가 가능한 무대 등이 구성되어 다양한 계층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거리가 조성됨 ● 거리의 성공을 토대로 방천시장 활성화 기대 	  <p>● 공공예술프로젝트 “별의별 별시장”</p> <p>사업기간(시행연) '08.2.1. ~ '08.6.30(순대골) / '09(만민아트센터, 구덕1)</p> <p>주 변 2010방천시장 예술프로젝트 운영위원회(최대규(위원장)방천구청)</p> <p>내 용 거리 미술화 작가들과 주민을 중심으로 특화된 예술프로젝트로 10년 단행본 제작기의 재공과 재차 시장 상권 활성화</p> <p>참여자가 10여명(공공)</p> <p>사업내용 김광석작품 설치, 재공(노후화), 방천아트센터, 방천아트홀, 방천아트홀(방천아트홀), 방천아트홀, 방천아트홀, 방천아트홀 등</p> <p>● 방천시장 사업추진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추진과제</th> <th>추진내용</th> <th>사업유형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공공예술사업</td> <td>거리(대중거리)의 활성화</td> <td>거리의 재공(노후화) 및 벽화, 거리 벽화, 거리 벽화</td> <td>1건 ;</td> </tr> <tr> <td>거리(대중거리)의 활성화</td> <td>거리의 재공(노후화) 및 벽화, 거리 벽화</td> <td>1건 ;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문화사업</td> <td>문화사업</td> <td>거리(대중거리)의 활성화</td> <td>방천시장(방천구청)</td> </tr> <tr> <td>문화사업</td> <td>거리(대중거리)의 활성화</td> <td>방천시장(방천구청)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문화사업</td> <td>문화사업</td> <td>거리(대중거리)의 활성화</td> <td>방천시장(방천구청)</td> </tr> <tr> <td>문화사업</td> <td>거리(대중거리)의 활성화</td> <td>방천시장(방천구청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	구분	추진과제	추진내용	사업유형	공공예술사업	거리(대중거리)의 활성화	거리의 재공(노후화) 및 벽화, 거리 벽화, 거리 벽화	1건 ;	거리(대중거리)의 활성화	거리의 재공(노후화) 및 벽화, 거리 벽화	1건 ;	문화사업	문화사업	거리(대중거리)의 활성화	방천시장(방천구청)	문화사업	거리(대중거리)의 활성화	방천시장(방천구청)	문화사업	문화사업	거리(대중거리)의 활성화	방천시장(방천구청)	문화사업	거리(대중거리)의 활성화	방천시장(방천구청)
구분	추진과제	추진내용	사업유형																							
공공예술사업	거리(대중거리)의 활성화	거리의 재공(노후화) 및 벽화, 거리 벽화, 거리 벽화	1건 ;																							
	거리(대중거리)의 활성화	거리의 재공(노후화) 및 벽화, 거리 벽화	1건 ;																							
문화사업	문화사업	거리(대중거리)의 활성화	방천시장(방천구청)																							
	문화사업	거리(대중거리)의 활성화	방천시장(방천구청)																							
문화사업	문화사업	거리(대중거리)의 활성화	방천시장(방천구청)																							
	문화사업	거리(대중거리)의 활성화	방천시장(방천구청)																							

부산 감천문화마을

지역특징





- 1950년대 태극도의 신앙촌신도와 6·25 피난민집단거주지로 형성된 계단식 거주형태
- 파스텔톤의 다양한 색채와 미로와 같은 사통팔달의 골목길
- '09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예술가와 주민,구청이 함께 조성
- '09 마을 미술 프로젝트인 '꿈꾸는 부산의 마추픽추' 사업과 2010년 콘텐츠 융합형 관광 협력 사업인 '미로미로 골목길 프로젝트' 사업으로 환경 정비와 벽화 사업이 이루어지며 현재와 같은 형태로 변화
- '15.한국관광 100선 선정
- 매년 10월 골목축제 개최 / 문화가 있는 날 운영(6~8월 매월마지막주 수요일)

초량 이바구길

지역특징

- 부산시 동구의 ‘초량 이바구길’은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테마 거리
- 길이 1.5km의 이바구길은 부산역 건너편에 자리한 부산 최초 물류창고인 남선창고터에서 출발해 옛 백제병원 건물, 초량초등학교 담장에 설치된 이바구 갤러리, 우물터, 168계단, 김민부(가곡 ‘기다리는 마음’을 작사한 시인)전망대, 당산, 망양로까지 이어져 있음.
-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 기념관에서는 건강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, 까꼬막(‘산비탈’의 경상도 사투리)은 산복도로 투어 및 체험을 제공
- 이바구길의 끝자락에 위치한 지상 2층 규모의 ‘이바구공작소’는 마을 자료관, 전망 데크 등을 운영하고 있다

세부내용

주요내용	관련자료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1950년대 전쟁 피난민 집단거주지로 개발한 지역활성화사업임 ● 당시 조성된 골목, 길 등 모습이 현재까지 잘 보존되어 있어 이를 관광자원화함 ● 이바구공작소를 제외한 주변 거점시설이 60~70년대의 모습을 컨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지역 내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고 거점시설을 구에서 매입, 상점으로 운영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생활여건 불량과 비교적 저렴한 지가로 지역 내 각종 사업부지확보가 양호 ● 지리적 위치상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관광객 유입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아직 초기단계로 매출저조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인건비 충당하며 운영 유지 ● 각 시설의 독특한 네이밍으로 눈길을 끄 (이바구충전소, 6.25막걸리, 168도시락, 이바구정거장) ● 경사가 급격한 “168계단”을 적극 마케팅으로 활용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하단부 우물터에서 물지게를 지고 오르던 길 (이바구공작소에 체험시설 설치) - 현재 계단주변 건물을 매입, “모노레일”설치중(문화전시공간 조성 포함) 	   

- 초량초등학교 담장을 활용하여 액자형 벽화가 조성 이곳 출신 역사적인 인물, 현재 유명인 등을 스트리트 전시회 느낌으로 소개함
- 경관조명이 없어 야간에 벽화를 감상하거나 이바구길을 산책하기에는 곤란해 보였음
- 전체적으로 산복도로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초량이바구길이 조성되었고, 일부 타 구간에서도 각각의 이름으로 이바구길이 조성되고 있음
- 산기슭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과 불량한 도로환경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접근성이 불량한 편 -> 특별한 목적을 갖고 방문하지 않는다면 접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보임
- 부산광역시는 2010년부터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도심재생의 과제를 예술과 문화를 접목하고 빼어난 경관자산을 활용한 골목활성화와 지역가치를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음







통영 동피랑마을

지역특징

- 통영시의 대표적인 어시장인 중앙시장 뒤편에 위치한 이 마을의 이름은 '동피랑'으로, '동쪽 벼랑' (비탈의 지역 사투리 '비랑')이라는 뜻을 가짐
- 통영시 정량동, 태평동 일대의 산비탈 마을로 재개발 계획이 수차례 변경 수정 되어온지역으로 벽화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여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마을 보존 여론이 형성되어 동포루 복원에 필요한 마을 꼭대기 집 3채만 헐고 철거방침을 철회하였다. 이후 절거 대상이었던 마을은 벽화로 인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통영의 새로운 명소로 변모함
- 지역 역사와 서민들의 삶이 녹아있는 독특한 골목 문화
- 2년마다 공모를 통해 벽화를 새롭게 단장
- 협동조합과 공동매장을 통한 주민자치와 공동체 경제를 형성한 전국 최고의 슬로시티 벽화마을
- '15.한국관광100선 선정

세부내용

주요내용	관련자료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2007년 ‘푸른통영21’이라는 시민단체가 공공미술의 가치를 들고 ‘동피랑 색칠하기-전국벽화공모전’을 열어 마을의 낡은 담벼락에 벽화를 그린 것을 시작으로 2년마다 공모를 통하여 마을의 벽화를 꾸미고 있음 ● 벽화자체가 상당히 수준이 높아 눈길을 끌었으나 군데군데 관리미흡으로 색이 바랜 경향이 있고, 거점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되지않아 다소 설렁한 느낌이 듦 ● 언덕 아랫마을에 비해 비교적 개발이 지체된 지역으로 낡은 주택과 공가(빈집)이 부분적으로 보이고, 일부주택이 개량화 진행 ●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소규모이고 벽화도 훼손된 것이 일부보이면서 현재 컨셉이 모호해진 경향이 있음 ● 마을안에 전망대가 있어(조선시대 이순신(李舜臣) 장군이 설치한 통제영(統制營)의 동포루(東砲樓)가 있던 자리) 올라가는 길의 벽화, 전망대에서의 풍경이 인상적임 ● 거점시설 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군데군데 있어 코스가 쉽게 보이지 않아 재미와 걷는 즐거움을 감소시킴 	   

독일마을

지역특징

- '00년부터 '06년간에 걸쳐 남해군이 조성한 독일거주 교포 정착촌 마을
-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와 동천리, 봉화리 일대 약 100,000㎡의 부지에 걸쳐 조성되어 있으며 독일 교포들이 직접 독일에서 건축부재를 수입하여 전통적인 독일 양식 주택을 건립하였는데 현재 40여동의 주택이 완공됨
- 독일산 건축자재로 빨간지붕과 하얀벽돌을 이용해 전통적인 독일양식으로 주택 건립
- 노후생활을 위한 주거지이지만, 독일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관광객을 위한 민박으로 운영
- '15.한국관광 100선 선정
- 주요명소로 파독전시관, 도이체 프라자(독일광장)

세 부 내 용

주 요 내 용	관련자료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구획정리를 한 상태에서 마을이 조성되어 전망과 조경이 매우 우수 ●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을 위한 정착촌이라는 컨셉에 맞게 독일식 주택과 광장, 네이밍으로 마을의 성격과 컨셉이 일치 ● 비교적 넓은 광장과 광장 일부에 설치된 전시관, 전시물이 국내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독일문화를 보여주고 있음 ● 이국적인 건축물과 장식물(배전반시설, 지주식 또는 행거형 간판, 독특한 디자인의 가로등 등) 실용적인 시설(음수대, 주차 구획)등이 특징적임 ● 2014년에 파독전시관은 1층은 넓은 독일식 광장, 지하는 파독 사람들의 일상, 역사에 대한 전시관으로 꾸며져 있음 (입장료 1천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독일마을의 정점을 찍어주는 시설로 작지만 세련되고 공감이가는 건물로 구성되어 인상적임(파독역사동영상을 제작 방영중) - 실제 파독한 주민이 해설사로 근무하면서 관람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음 	